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2. 21.(화) 06:00 ~ 23:00
- 상담건수¹⁾: 791건

II. 주요의견 내용

○ 출연자 호평(3명)

-프로그램명 : 「아침마당」 ‘화요초대석’

-방송일시 : 2023. 2. 21.(화) 1TV (08:25-09:30)

이번 ‘화요초대석’에는 1부에는 가수 이광조 씨가, 2부에는 개그맨 고영수 씨가 출연해 근황을 들려주었다. 두 출연자 모두 최근 방송에서 만날 수 없었던 터라 무척이나 반가웠고, 특히 고영수 씨는 개그맨답게 입담이 화려해 시청 내내 가족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두 출연자 모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란다.

○ 진행자 제언(4명)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방송일시 : 2023. 2. 20.(월) 1TV (16:00-17:00)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정해 꼼꼼하게 분석해주어 자주 시청한다. 그런데 진행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발언 시간을 더 길게 분배하는 점이 공정하지 않게 여겨진다. 또한 패널들이 자제력을 잃고 언성이 높아질 때 더 강하게 중재해주었으면 한다. 시청자들이 신뢰하는 시사 프로그램인 만큼 조금 더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KBS 뉴스’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791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418	18	-	-	355	791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400	258	16	-	1	116	791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42	649	-	791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626	2	74	89	791

시청자 의견	문 의
【편 성】 ○ 「우리말 겨루기」 - 결방 제언 ○ 「TV는 사랑을 싣고」 - 후속 방송 요청 【보 도】 ○ 「사사건건」 - 진행자 제언 【시사·교양】 ○ 「특별생방송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절망에서 희망으로」 - 방송 제언 ○ 「아침마당」 - 출연자 호평 【연예·오락】 ○ 「가요무대」 - 출연자 섭외 호평 【라디오】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 호평	【방 송】 ○ 「2TV 생생정보」 - ‘평양냉면’ 연락처 문의 42건 ○ 「6시 내고향」 - ‘봄동 문의’ 연락처 문의 37건 ○ 「KBS 뉴스 9」 - ‘보도 제언’ 16건 ○ 「가요무대」 - ‘방청’ 문의 16건 ○ 「아침마당」 - ‘출연자’ 문의 14건 【기 술】 ○ 「난시청」 문의 1건 ○ 「수신기술」 문의 1건 【경 영】 ○ 「홈페이지」 문의 39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5건 ○ 「전화교환」 문의 14건 ○ 「수신료」 문의 2건 ○ 「주차」 문의 1건 외 3건 【기 타】 ○ 한진 문의사항 포함 89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결방 제언	○ 「우리말 겨루기」 (14명) - 2023. 2. 20.(월) 1TV (19:40-20:30) - 재미있는 퀴즈 대결을 통해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올바른 우리말 표현을 익힐 수 있어 매주 시청 중인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너무 아쉬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후속 방송 요청	○ 「TV는 사랑을 싣고」 (2명) - 2020. 9. 9.~2021. 6. 30. (수) 2TV 방송. (총 121부작) - 연예인들의 추억 속 인물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매회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그들이 재회하는 모습을 보며 세월이 흐를수록 소중해지는 인연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따뜻한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아쉽다. 조만간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보 도]	
진행자 제언	○ 「사사건건」 (4명) - 2023. 2. 20.(월) 1TV (16:00-17:00) - 시청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를 선정해 꼼꼼하게 분석해주어 자주 시청한다. 그런데 진행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 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발언 시간을 더 길게 분배하는 점이 공정하지 않게 여겨진다. 또한 패널들이 자제력을 잃고 언성이 높아질 때 더 강하게 중재해주었으면 한다. 시청자들이 신뢰하는 시사 프로그램인 만큼 조금 더 공정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시사 · 교양]	
방송 제언	○ 「특별생방송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절망에서 희망으로」(9명) - 2023. 2. 20.(월) 1TV (19:30-20:30) - KBS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돕기 모금 생방송을 진행했고, 본인도 모금에 동참하고자 방송을 시청했다. 그런데 일단 ARS 번호가 너무 작게 기재돼 고령의 시청자들은 자막을 읽기가 어려웠고, 기부금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디로 전달되는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도 아쉬웠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금 현황 및 누적 금액을 알려주었다더라면 더 많은 기부금이 모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출연자 호평	○ 「아침마당」 ‘화요초대석’(3명) - 2023. 2. 21.(화) 1TV (08:25-09:30) - 이번 ‘화요초대석’에는 1부에는 가수 이광조 씨가, 2부에는 개그맨 고영수 씨가 출연해 근황을 들려주었다. 두 출연자 모두 최근 방송에서 만날 수 없었던 터라 무척이나 반가웠고, 특히 고영수 씨는 개그맨답게 입담이 화려해 시청 내내 가족들의 웃음이 끊이질 않았다. 두 출연자 모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길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연예 · 오락]	
출연자 섭외 호평	○ 「가요무대」 ‘역사는 흐른다’(3명) - 2023. 2. 20.(월) 1TV (22:00-22:55) - 이날 방송은 ‘역사는 흐른다’라는 주제로 과거 역사적 인물이나 시대적 배경을 묘사한 노래를 들려주었다. 평소와 다른 콘셉트가 흥미로웠고, 무엇보다 이날 조명섭 씨와 김연자 씨 등 출연자 구성이 좋아 재미있게 시청했다. 특히 김연자 씨가 두 곡이나 불러 즐거웠다. 가끔 신인 위주로 섭외될 때가 있는데, 이날처럼 인지도 있는 가수 위주로 섭외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방송 호평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2023. 2. 21.(화) 1R (09:05-10:53) - 경제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김방희씨의 좋은 진행과, 청취자들의 문의에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어려운 경제를 쉽고 명확하게 다루는 제작진도 칭찬하고 싶다. 계속해서 오전 출근길의 직장인과 소상공인, 주부에게 도움이 되는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